

2016 건국 국제 대장암 심포지엄 성료

“대장암 치료 관련 방대한 임상 정보 공유 기반을 마련했다”

건국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센터장 황대용 교수)는 지난 8월 27일 원내 대강당에서 2016 건국 국제 대장암 심포지엄(Konkuk International Colorectal Cancer Symposium)을 개최했다. 미국 캐롤라이나 암센터의 중앙내과 정기영 박사와 일본 국립암센터의 대장외과 분과장인 Y. Kanemitsu 박사가 초빙돼 건국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의 유춘근, 정은주, 백진희 교수와 함께 대장암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4개의 세션, 11개의 강의로 발표했다.

세션 1은 ▲후측 결장암에서 전결장간막 및 D3 림프절절제술의 장점 및 최신지견(Yukihide Kanemitsu 일본 국립암센터 대장외과 분과장) ▲대장암의 뇌전이(유춘근 건국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 ▲후측 결장암과 좌측 결장암, 대장암의 위치가 중요한가?(정기영 미국 캐롤라이나암센터 중앙내과)로 구성됐다. 이어 ▲대장암 환자에서 비정형 폐결절의 의의(정은주 건국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 ▲내시경 용종절제술 후 T1 대장암 수술치료 가이드라인



(Yukihide Kanemitsu 일본 국립암센터 대장외과 분과장) ▲대장암 circulating tumor DNA의 임상적 의의(정기영 미국 캐롤라이나암센터 종양내과) 강연이 이어졌다.

세 번째로 ▲2기, 3기 하부 직장암에서 직장간막절제술 및 외측 림프절절제술 유무에 따른 무작위 비교연구(Yukihide Kanemitsu 일본 국립암센터 대장외과 분과장) ▲대장암 환자에서 K-ras 및 MSI에 따른 보조적 화학요법의 효과(백진희 건국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 ▲전이성 대장암 치료의 최신지견(정기영 미국 캐롤라이나암센터 종양내과)이 발표됐다.

마지막으로 ▲일본 JCOG 에서 진행 중인 대장암 외과적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Yukihide Kanemitsu 일본 국립암센터 대장외과 분과장) ▲대장암 치료의 최근 연구 현황(정기영 미국 캐롤라이나암센터 종양내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황대용 교수(건국대의대)가 의장을 맡았으며 김홍대 교수(성균관대의대), 백무준 교수(순천향대의대), 김광호 교수(이화여대의대), 엄준원 교수(고려대의대), 오승택 교수(가톨릭대의대), 김희철 교수(성균관대 의대), 김남규 교수(연세대의대), 박규주 교수(서울대의대), 김형진 교수(가톨릭대의대), 박인자 교수(울산대의대), 민병소 교수(연세대의대) 등 국내 대장암전문의 150여명이 참석했다.

건국국제대장암 심포지엄은 매년 개최되며 대장암의 수술치료 및 항암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물치료에 관한 최신 정보를 다룬다.

김윤선 기자/MP저널



▲황대용 병원장 겸 대장암센터장.

